
빈틈을 채우는 글쓰기 Between the Blanks

새로운 질서 그 후 After New Order

남선미, 윤충근, 이소현, 이지수 Nam Sunmi, Yoon Choonggeun, Lee Sohyun, Lee Jisoo

투고일 2022년 12월 31일 / 심사일 2023년 1월 15-31일 /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31일
Received Date 31 Dec, 2022 / Reviewed Date 15-31 Jan, 2023 / Accepted Date 31 Jan, 2023
p-ISSN. 2765-2572 / e-ISSN. 2765-7825

PP:102-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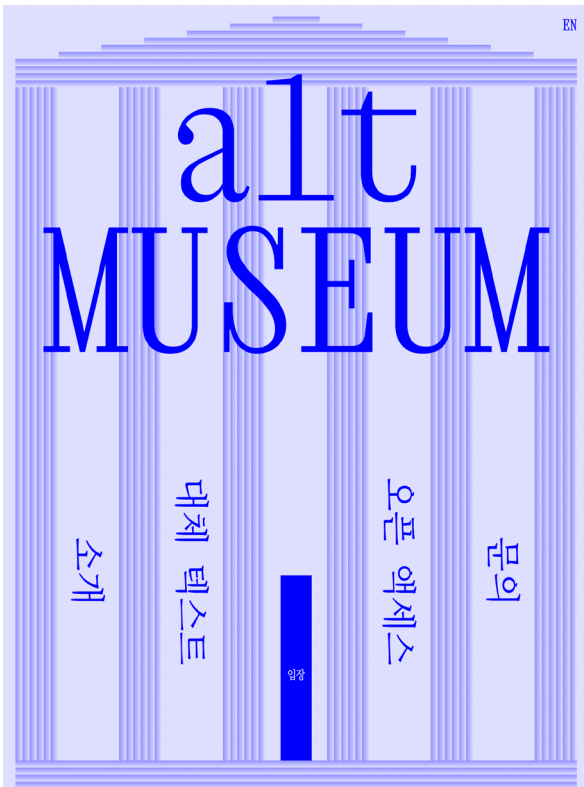
[그림 1] 국립대체미술관(AIT MMCA)

요약

<대체 미술관>(altmuseum.org)은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이미지를 묘사하는 글쓰기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일반적으로 비워두는 대체 텍스트(alt text)에 관한 의문에서 시작한 이 작업은 꾸준한 실천으로 이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웹(World Wide Web)이라는 온라인 공간을 넘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과 실험적 글쓰기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Abstract

“Alternative Museum” (altmuseum.org) explores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descriptive writing when depicting images, focusing on case studies of operational practices. This project originated from questioning the conventional use of alternative text (alt text) typically left empty when constructing websites. It expands into discussions on how we perceive objects beyond the online space of the World Wide Web and experimental writing.



[그림 2] 대체 미술관(Alt Museum)



이미지를 완벽하게 묘사하는 글쓰기란 가능할까? 윤충근, 이지수(새로운 질서 그 후)가 올해 3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대체 미술관>(altmuseum.org)[그림 1-6]은 국내외 미술 기관의 오픈 액세스 소장품 이미지를 대체 텍스트(alt text)로 선보인다. 대체 텍스트란 온라인상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글로 시각장애인이 온라인상에서 이미지를 감상할 때 쓰인다.

대체 미술관 운영 과정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소장품 이미지 선정이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다양성이다. 작가의 성별이나 인종, 국적 등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흔히 '미술'하면 떠올리는 전통적인 회화 외에도 설치, 뉴미디어, 공예 등 폭넓은 매체의 작품 이미지를 다루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술 기관이 제공하는 오픈 액세스 이미지의 대부분이 20세기 이전 작품이며 여성이나 동양인, 흑인 작가의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유산의 차원에서 미술관은 어떤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남긴다.

두 번째는 대체 텍스트 작성이다. 이 과정은 총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각자가 선정한 이미지를 서로에게 공유하지 않고 대체 텍스트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상대방이 쓴 대체 텍스트를 검토한다. 이때, 글 일부를 수정하거나 생략해 초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안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서로가 쓴 두 개의 글을 비교하며 공동으로 편집함으로써 최종안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치열하게 서로를 설득하며, 단어나 조사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제적인 문장 구조를 도출한다. 한 문단의 대체 텍스트를 선보이기까지 실제로 수십 개의 글을 쓰는 셈이다.

대체 텍스트 작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적이다. 먼저, '본다'는 감각은 불완전하다. 같은 이미지를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 인식하는 범위가 다르다. 이미지의 밀도나 이미지를 감상하는 상황에 따라 이 차이는 극대화된다. 다음으로, 인식한 것을 글로 옮기는 방식이

개인마다 다르다. 이미지의 중심 또는 주제부에서부터 글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미지를 레이어로 구분해 아래에서부터 위로 문장을 쌓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이미지의 종류나 성격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글쓰기 방식은 마땅히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체 텍스트 작성은 일종의 글쓰기 실험에 가깝다.

이처럼 불완전한 글쓰기가 갖는 효용은 무엇일까? 대체 텍스트 작성은 쉽게 말해 '보이는 대로 쓰기'이다. 이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물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고 의심하게 함으로써 탈학습(unlearning)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테면, 인물이 있는 이미지를 묘사할 때 여성, 소녀, 외국인, 동양인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피부색이나 신체와 같은 외형을 기준으로 삼아 성별이나 정체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지 묻는 것이다.

공공 기관을 포함한 대부분 기관 또는 개인이 대체 텍스트 입력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완벽하게 이미지를 묘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이 애초에 절대적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미지의 특성이나 개개인의 문체에 따라 서로 다른 글쓰기가 공존하는 것이 어쩌면 더 알맞은 방식이 아닐까. ④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사람 예수 명
가량이 있는 세피아톤 단체 사진이다.
사람들은 실내에 있고 가깝게 모여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화면 가운데에
면사포를 두르고 흰색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양손으로 꽃다발을 들고 있다.
대부분 서 있고 앞 줄에 있는 일곱 명은
의자에 앉아 있다. 맨 앞에 세 명이
바닥에 앉아 있다.

75



고동색 고양이 한 마리가 분홍색 면
위에 옆으로 누워 있는 그림이다.
분홍색 면은 화면 아래쪽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머리를 화면 오른쪽에 두었고
얼굴은 화면 정면을 향한다. 눈알은
노란색이고 코는 붉은색이다. 귀는
쭈긋 솟았다. 몸통에 검은 얼룩이 있고
배부분은 하얗다. 배경은 고양이의
몸통 색과 비슷하다.

152



황토색 전신 조각상이 있는 공원의
풍경을 담은 그림이다. 조각상은 화면
왼쪽에 있고 사람 열 명가량이 화면
오른쪽에 있다. 조각상은 화면 오른쪽을
향해 옆모습을 보인다. 조각상은 사람
키보다 1.5배가량이 크고 자신의 키만
한 높이의 단상 위에 있다. 바닥은
황토색이다. 어두운 풀색 잎이 무성한
나무 여러 그루가 배경에 있다. 하늘에
흰 구름이 뿔뿔하다.

223

[그림 3] 대체 미술관(Alt Museum)



[그림 4] 대체 텍스트 워크숍(Alt Text Workshop)



[그림 5] 대체 미술관(Alt Museum)

